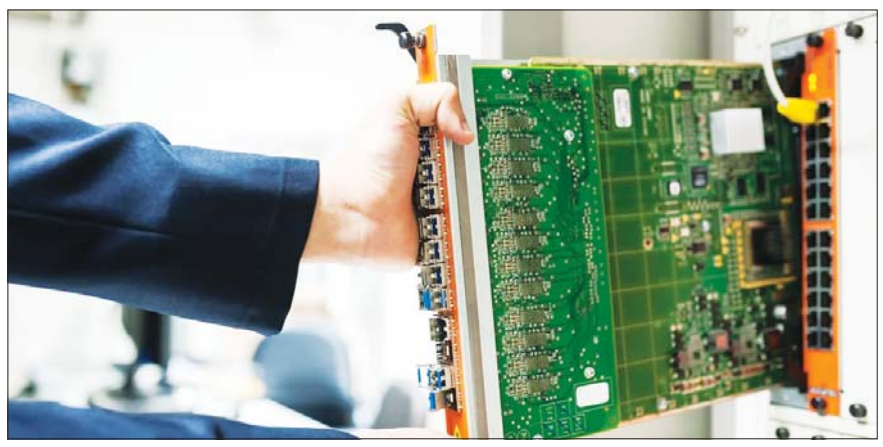
韓 IDC 정책, '전자파 해결'에 갇혀… 주민이탈·갈등은 외면

〈인터넷데이터센터〉

美, 대규모 데이터센터 설립 가속
인구유입 없이 전력망 부담만 가중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 방안 논의

韓, 전자파 우려에 신호등 설치 논란
전력·수자원 문제에 대한 논의 부재
다각적 정책 수립·상생 방안 필요



데이터센터를 관리하는 사람의 모습. 데이터센터는 해당 지역의 전력망 손실과 지역 경제 발전 저하를 가져온다. IDC 관리에 대인원이 필요하지 않고 발전소, 변전소 등 주요 전력시설만이 필요한 탓이다. /PEXEL 무료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여파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는 IDC가 님비(NIMBY, 지역주민들이 각종 혐오시설의 유치를 반대하는 것) 현상의 새로운 시설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IDC 설립에 따른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해결책 모색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전자파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만 대책을 세운 상태이며, 다각도로 접근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17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미국 중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거대 IDC 건립에 따른 주민 이탈과 건립계획에 대한 반대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버지니아 주(州)의 페어팩스 카운티는 최근 주민 이탈과 빈곤율 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23년 총 인구 2만5140명이었으나 2021년 2만4280명으로 다소 줄었는데, 정작 빈곤율은 2020년 27.4%에서 2023년 27.8%로 높아졌다. 페어팩스는 버지니아 주에서도 특히 IDC가 대거 들어선 곳으로, 4만 3292m² 에 달하는 IDC가 자리하고 있다. 이는 축구장 6개에 달하는 너비다.

인구 이동은 IDC 건립에 따른 발전소와 변전소 등 주요 님비 대상 시설 탓이다. 버지니아 주 전체로 합산하면 300개 이상의 데이터센터가 현재 가동 중인 까닭에 '버지니아 프로젝트'로 불리는 IDC 건립 반대 단체까지 세워졌다.

미국 내 IDC 건립에 대한 반대 여론은 전력망 손실과 함께 설립에 따른 지역민의 이익 보장이 되지 않는 데에 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2023년 버지니아에서 생산 된 모든 전력의 25%가 IDC로 갔고, 현재 속도로 IDC 확충이 이뤄진다면 해당 수치는 2030년 46%에 이를 전망이다. 중형 IDC는 매일 냉각을 위해 1000가구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물을 사용하는데, 해당 비용은 IDC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은 아직 대규모 IDC 센터에 따른 기존 주민 이탈 사례는 없다. 그러나 주요 IT 기업들이 자사 서비스를 위한 단독 IDC를 짓는 추세에 따라 관련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다만, 최근 정부에서 인지하는 IDC에 대한 문제는 일차원적이다.

지난 11월 '스마트엔터프라이즈 2024'에 참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전자파 신호등 설치 등을 통한 IDC 안전성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많은 시민이 데이터센터를 유해시설로 본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알게 됐다"며 "실제로 데이터센터 근처에서 측정되는 전자파의 양은 생각보다 적어 전문가 실측 결과 인체보호 기준 약 5%에서 최대 10% 미만에 그치며 최저치는 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알리기 위해 전자파 신호등을 통해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를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 주요한 문제로 떠오른 지역민에 이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정부가 인지하는 IDC 건립에 따른 문제가 일차원적인 만큼, 이미 관련 문제가 벌어지고도 해결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과거 발생했던 제주도와 카카오 간 문제다. 카카오는 제주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문화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지원책을 앞장 세운 사업계획서를 통해 2007년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입주했다.

그러나 2015년 결국 대부분 인력을 판교로 이동시키기 시작해 2022년 기준 전체 직원 중 2.4%인 82명만을 제주 본사에 남겼다. 여기에 더해 제주 제2데이터센터 건립사업까지 결국 무산되면서 국정감사에서 '먹튀 논란'까지 일기도 했다.

당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중 대표기업은 카카오"라며 "제주 경제와 문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담긴 사업계획서에 대해 제주도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환영했고, 카카오는 입주와 함께 각종 지원으로 259억원의 혜택을 받았지만 결국 사업계획서 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KT

"AI가 스팸 위험 판단"

스팸 의심문자 알림 서비스 출시

KT는 스팸 문자 위험도를 판단해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스팸 의심문자 알림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용자는 별도로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 없이 오늘부터 무료로 삼성전자 단말에 자동 적용되며, 고객이 수신하는 단문메시지서비스(SMS)에 대해 스팸 의심여부를 표시한다. 내년부터는 멀티미디어메시지(MMS)에도 적용한다.

이와 함께 KT는 점점 고도화되는 스미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무료 부가서비스인 'KT 스팸차단 서비스'도 강화한다.

악성 스미싱 URL뿐 아니라 URL의 최종 IP까지 추적해 차단하는 기능을 내년 1월까지 적용 예정이다. 이로써 스팸차단 서비스를 피하기 위해 URL을 계속 바꾸던 변작 행위까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KT는 지난 9월 마이케이티 앱에서 '스미싱 지킴이' 서비스를 출시했다. 문자 카카오톡 라인을 통해 받은 메시지의 URL이나 설치파일을 클릭할 경우, 자동으로 스미싱 불법사이트 연결 여부를 파악해 자동으로 차단한다. 스미싱 지킴이 서비스는 KT 마이케이티 앱을 설치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노하우부터 경영 전략까지"… 외식업의 길잡이 되다

배달의민족, '외식업컨퍼런스' 개최
배민 데이터 기반 2025 트렌드 공개
철가방 요리사·딤섬 여왕 등 강연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배민외식업컨퍼런스' 현장은 외식업계 종사자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고물가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외식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직 사장님부터 예비 창업자까지 약 20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배민외식업컨퍼런스는 배달의민족이 외식업 장사 전략과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행사다. 현재 외식업을 운영 중인 사장님은 물론 예비 창업자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지난 2020년 온라인 행사로 시작해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배민외식업컨퍼런스'에서 마련된 '배민 솔루션' 체험존 속 배민 서빙로봇. /이혜민 기자

이날 행사는 '외식업 인사이트'와 '배민 인사이트', '베스트 클래스', '사장님 클래스' 등 네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 코너별 4~9개씩 총 25개의 외식업 전문가들의 강연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필요에 따라 판매전략, 레시피, 마케팅, 손익관리 등 다양한 강연을 선택해 들었다.

권재홍 우아한형제들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오늘 이 자리가 사장님들의 2025년 성공 전략을 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경희대 최규완 교수는 '2025 외식업 성공전략' 발표를 통해 "외식 산업의 과밀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저하가 예상된다"며 외식 경영의 효율화를 강조했다. 오후에는 '철가방 요리사'로 알려진 임태훈 셰프가 긍정과 끈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너 셰프로 성장하기까지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공유했고, '딤섬 여왕' 정지선 티앤미 셰프는 매출을 올리는 사이드 메뉴 레시피를 전수했다. 프릳츠커피 송성만 이사는 프릳츠의 10년 생존 스토리와 커피 메뉴 노하우를 소개했다.

김지현 우아한형제들 사장님커뮤니케이션실장은 배민 데이터로 분석한 '2025 배민트렌드'를 최초로 공개했다. 내년 핵심 키워드는 '초개인화' '저속노화' '맞춤소비' 세 가지다. 고객의 취향을 세분화해 맞춤형 옵션을 제공하고, 저염·저칼로리 등 건강 메뉴 트렌드를 반영하는 전략이 제시됐다.

현장에는 사장님 전용 식자재몰 '배민상회' 전시도 마련됐다. 배민상회는 올해 7주년을 맞이한 사장님 전용 종합 온라인 식자재몰로, 배민상회의 다양한 파트너사들이 공간을 채웠다. 서빙로봇과 테이블오더 서비스 '배민오더' 등 배민 솔루션 체험존도 큰 인기를 끌어 참석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권재홍 우아한형제들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트렌드를 이해하고 새로운 영감과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얻어 지금의 상황에 잘 대처해 나가는 지혜와 용기를 얻어 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

LGU+

"AI 대화로 콘텐츠 추천"

익시 기반 'U+tv' 업그레이드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를 통해 IPTV에서 대화하며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LG유플러스는 AI 기술 '익시'를 기반으로 IPTV인 U+tv에서 대화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탐색' 기능을 업데이트 했다고 17일 밝혔다.

U+tv의 대화형 탐색은 고객이 리모컨에 탑재된 음성 검색 버튼을 통해 자유롭게 대화하며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다. 기존에는 고객의 음성 명령 중 AI가 사전에 입력된 '명령어'를 이해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번 업데이트 이후에는 고도화된 AI가 길이가 긴 대화형 문장의 '맥락'을 이해하고 맞춤형 답변을 내놓는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영화 타로 찾아줘", "차은우 나오는 드라마" 등 정확한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을 중심으로 답변을 제공했지만, 대화형 탐색은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함께 볼 영화 추천해줘", "타로 줄거리 알려줘", "데드풀 어떻게 생각해?" 등 상황과 분위기에 따른 콘텐츠 추천은 물론, 콘텐츠 관련 추가 정보도 대화를 통해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LX하우시스, 10년 연속 'DJSI 코리아 지수' 편입

국내 인테리어 업체 유일 포함

LX하우시스가 10년 연속으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Korea 지수'에 편입됐다. LX하우시스는 글로벌 금융 정보 제공기관 'S&P Global'이 발표한 '2024 DJSI Korea 지수'에 LX하우시스가 국내 인테리어 업체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DJSI 지수는 S&P Global이 1999년부터 25년째 발표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지수로,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ESG 측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올해에는 환경관리 관련 항목이 용수, 폐기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더욱 엄격한 평가가 진행됐다.

LX하우시스는 환경 정책 및 관리, 기후 전략, 안전관리, 인적자본관리, 위기관리, 정보보안 항목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고 환경경영 시스템의 범위를 공개한 점과 온실가스 관리, 환경경영 관련 임직원 교육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김승호 기자 bada@